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Longitudinal Impact of Self-esteem Trajectories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Children

1차원고접수: 2024.04.10. 수정원고접수: 2024.06.06. 최종재제결정: 2024.06.23.

김영미¹

¹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조교수

Kim, Young Mi¹

¹Dept. of Child and Family Counseling, Gukje Cyber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2,271명의 데이터를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6학년 기간 동안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형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는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 또래 및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아동, 잠재성장모형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and the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self-esteem trajectori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multicultural children.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1st to 3rd waves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2nd) involving 2,271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om fourth to sixth grade,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decreased linearly over time, with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tercept and slope of self-esteem. Second, in the fourth grade,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Third, both the slop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life adaptation in the sixth gra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are crucial protective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multicultural children. For future interventions targeting low self-esteem, it is essential to foster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to promot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during late childhood.

Keywords self-esteem, social support, school life adaptation, multi-cultural children, latent growth model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4% 감소하여 약 520만 명인 것에 반해, 다문화 학생은 연평균 13.6%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 약 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 본 논문은 2024년도 국제사이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to 김영미 (Kim, Young Mi)

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조교수 (Dept. of Child and Family Counseling, Gukje Cyber University) E-mail. kimym@gjc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차별 없이 수용할 준비가 부족하여 이들이 상처받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특히 다문화 아동의 학업 부진, 비행, 가족 및 또래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이중 문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박은민, 2015; Liu, Jiang, Li, & Yang, 2021).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주 여성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학교적응은 다문화 여부를 떠나 이 시기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생활 적응은 아동이 학교 환경과 개인 욕구 간 균형을 이루고 교사 및 친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여부는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이후 상급학교의 적응과 성인기 안정적인 삶을 예측한다(Wentzel, Russell, & Baker, 2014).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교생활은 개인의 삶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변화가 큰 시점이다. 이희정 등(2010)은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교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며 개인 적응력의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권혜진, 성미영, 2014).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아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원만한 또래 및 교사관계, 학교 규칙 준수, 적극적인 학습태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돕는다(Swann, Chang-Schneider, & Larsen MaClarty, 2007). 선행연구(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수십 년 후에도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th & Robins, 2014).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발달양상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영미, 2023; Harter, 1999; Krauss, Orth, & Robins, 2020).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아동이 자신을 또래와 비교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자아를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자아존중감에 있어 개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Ruble & Frey, 1991).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적응 지표이자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횡단연구를 통해 밝혔다(범령옥, 임선아, 2024; Zhao, Zheng, Pan, & Zhou, 2021). 그러나 횡단적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종단적 연구는 동일한 대상의 데이터를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기 학령기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가 급변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개인차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Steinberg & Morris, 2001)이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발달단계 변화

에 따른 적응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의미하며, 이는 다문화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Ikiz & Caker, 201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도 심리적 적응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았다(Liu et al., 2021). 이때 아동이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보다는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영향을 준다. 즉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가까운 관계와 유대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안정감을 다르게 느낀다.

아동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최초의 애착 대상인 부모이다. 학령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arkiewicz, Lawford, Doyle, & Haggart, 2006). 부모와 친근한 관계에 있는 아동은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아동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녔으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적극적인 경청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가정과 더불어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이다. 아동의 개인적 관계망에서 또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애착 대상으로 사회 및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적응 상황에서 보호적 기능을 담당한다(Wilkinson, 2004).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느끼며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Gorrese & Ruggieri, 2013). 또한 아동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스럽다고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또래 영향력이 커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래 문화를 공유하는 아

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 반면, 또래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이보람, 박혜준, 2016).

교사 역시 아동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한 아동은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았으며 학업중단이나 비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숙, 전종설, 2020). 특히, 교사는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 과정에서 언어격차, 학습부진, 따돌림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보호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아동에게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방성아, 2024).

종합하면, 학령기 다문화 아동은 이중 문화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 저하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달하며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접근에 의존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단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부모, 또래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다문화 아동(초등학교 4 ~ 6학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MAPS 2기 자료는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료를 수집한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초4), 2차년도(초5), 3차년도(초6)에 모두 참여한 아동 총 2,271명(남아 1,156명, 50.9%)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아동 10.05세($SD = .30$), 어머니 37.64세($SD = 5.64$), 아버지 48.37세($SD = 6.25$)로 나타났다. 부모 중 어머니만 외국인인 경우는 1,852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361명(15.9%), 아버지만 외국인인 경우는 58명 (2.6%) 순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졸(53.0%), 4년제 대졸(14.6%), 중졸 이하(11.8%)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44.5%), 중졸 이하(29.5%), 4년제 대졸(13.0%) 순으로 많았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28.2%), 경상권(24.8%), 충청 및 강원권(17.5%) 울산시(5.9%)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

렬, 2017)에서 발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1차년도 .80, 2차년도 .82, 3차년도 .85, 전체 .83이었다.

2) 부모 지지

김순규(2001)가 개발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예: ‘부모님은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이었다.

3) 또래 지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척도 중 친구와 관련된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예: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동이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다.

4) 교사 지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척도 중 교사 지지 8개 문항을 3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예: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다.

5) 학교생활 적응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등, 2017)에서 발췌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등이다.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의 양상과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6학년 시기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과 함께 절대적합지수 RMSEA와 증분적합지수 TLI와 CFI를 사용하였다. RMSEA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왜도는 절댓값 2미만, 첨도는 절댓값 7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자아존중감 평균은 소폭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18 ~ .47)을 보였으며, 3차년도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18 ~ .24)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으로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함수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이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모형의 TLI와 CFI값이 가장 높았고, RMSEA값이 가장 낮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선형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의 초기치 예측평균은 3.28,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2로 통계적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1차 자아존중감	-						
2. 2차 자아존중감	.35**	-					
3. 3차 자아존중감	.27**	.39**	-				
4. 1차 부모 지지	.47**	.28**	.24**	-			
5. 1차 또래 지지	.39**	.28**	.19**	.34**	-		
6. 1차 교사 지지	.35**	.23*	.18**	.36**	.44**	-	
7. 3차 학교생활 적응	.18**	.24*	.24**	.23**	.19**	.24**	-
<i>M</i>	3.29	3.24	3.25	3.34	3.85	3.79	3.20
<i>SD</i>	.56	.52	.50	.54	.82	.81	.45
Skewness	-.64	-.46	-.34	-.55	-.49	-.36	-.14
Kurtosis	.95	1.06	.90	.27	.12	.05	.77

* $p < .05$, ** $p < .01$.

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28에서 매년 -.02씩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 있어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공분산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차변화율이 낮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1차년도 사회적 지지 및 3차년도 학교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 = 28, p < .001) = 216.85$, TLI = .95, CFI = .97, RMSEA = .05로

모형의 적합도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 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부모, 또래 및 교사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더 높았으며 감소율은 낮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6학년 시기의 학

표 3.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이차함수 모형의 추정치

구분	초기치	변화율
평균	3.28***	-.02**
분산	.14***	.02***
공분산	초기치 ↔ 변화율 = -.0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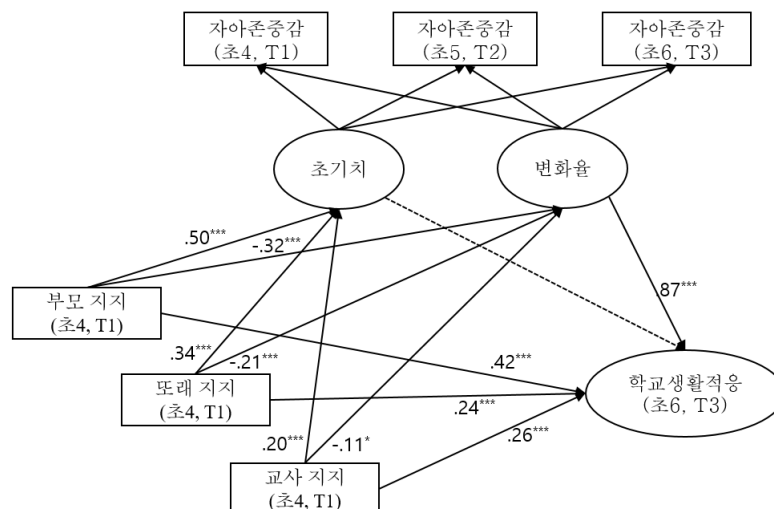
Note. 괄호 안은 표준화된 상관계수임.

** $p < .01$, *** $p < .001$.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28.49***	6	.96	.95	.06
선형 모형	19.31***	4	.98	.98	.04
이차함수 모형	15.20**	2	.93	.94	.06

** $p < .01$,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1. 구조모형

표 4.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추정치

경로	B	S.E.	β
부모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32***	.02	.50
부모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9***	.01	-.32
또래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22***	.02	.34
또래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6***	.01	-.21
교사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13***	.02	.20
교사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3*	.01	-.11
자아존중감 초기치 → 학교생활 적응(3차)	.05	.07	.06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교생활 적응(3차)	2.04***	.26	.87
부모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27***	.05	.42
또래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16***	.04	.24
교사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17***	.03	.26

* $p < .05$, *** $p < .001$.

교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받은 지지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아동은 6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 그리고 6학년 시기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비교적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Harter, 1999).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다가 11 ~ 15세에는 개인차도 안정적이라고 주장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Krauss, Orth, & Robins, 2020). 이는 다문화 아동이 학령기 동안 겪는 이중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문화 아동은 학령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 이외에도 이중 문화를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 아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폭이 커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상담이나 지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더라도 6학년이 될 때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므로 다문화 아동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 즉 부모, 또래 및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더 높

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율의 변화추세는 더 느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이후 6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중 변화율만이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4학년 시기의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아닌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감소 폭이 클수록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의 감소 폭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개인차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범령옥, 임선아, 202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학교생활 적응이 가장 어려운 전환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6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4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호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며, 이는 상급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문화 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생활과 문화가 달라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 시기부터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 중 3.63점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 중 3.24 ~ 3.29점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사용된 척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중평정자,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를 양극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일 차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정득, 이종석, 201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차원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발달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다문화 사회에서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8. 30).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에서> 2024년 4월 1일 인출
- 권혜진, 성미영 (2014).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95-403. <https://doi.org/10.6115/fer.2014.52.4.395>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23).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및 영향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44(1), 57-68. <https://doi.org/10.5723/kjcs.2023.44.1.57>
- 박은민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 연구*, 22(1), 37-54. <https://doi.org/10.15284/kjhd.2015.22.1.37>
- 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1(4), 719-738. <https://doi.org/10.21187/kps.2015.21.4.719>
- 방성아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 사회적 지지,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과 다층모형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1), 304-313. <https://doi.org/10.5762/KAIS.2024.25.1.304>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범령옥, 임선아 (2024). 다문화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양방향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5(1), 29-38. <https://doi.org/10.5723/kjcs.2024.45.1.29>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2), 77-91. <https://doi.org/10.11614/FQ.2013.31.2.77>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보람, 박혜준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검증. *아동학회지*, 37(6), 5-17. <https://doi.org/10.5723/kjcs.2016.37.6.5>
- 이희정, 조운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https://doi.org/10.21509/KJYS.2010.17.2.253>
-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223-255. <https://doi.org/10.21509/KJYS.2020.27.8.223>
- 정득, 이종석 (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273>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orrese, A., & Ruggieri, R. (2013).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59-568. <https://doi.org/10.1016/j.paid.2013.04.025>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Ikiz, F. E., & Cakar, F. S. (2010).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2338-2342.
- Krauss, S., Orth, U., & Robins, R. W. (2020). Family environment and self-esteem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 10 to 1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2), 457-478. <https://doi.org/10.1037/pspp0000263>
- Liu, Q., Jiang, M., Li, S., & Yang, Y. (2021).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self-esteem protect against common mental health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A non-recursive analysis from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Medicine*, 100(4), e24334. <https://doi.org/10.1097/MD.00000000000024334>
- Markiewicz,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121-134. <https://doi.org/10.1007/s10964-005-9014-5>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 Ruble, D. N., & Frey, K. S. (1991). Changing patterns of comparative behavior as skills are acquired: A functional model of self-evaluati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79-113). Hillsdale, NJ: Erlbaum.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83-11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83>

- Swann, W. B., Jr., Chang-Schneider, C., & Larsen McClarty, K.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2), 84-94.
<http://doi.org/10.1037/0003-066X.62.2.84>
- Wentzel, K., Russell, S., & Baker, S. (2014). Peer relationships and positive adjustment at school. In M. J. Furlong, R. Gilman, & E. S. Huebner(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pp. 260-277). London: Routledge.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https://doi.org/10.1023/B:JOYO.0000048063.59425.20>
- Zhao, Y., Zheng, Z., Pan, C., & Zhou, L. (2021).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adolesc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2, 690828.
<https://doi.org/10.3389/fpsyg.2021.690828>